

소성 조건이 Pt/MoO₃/SiO₂ 촉매의 수소 흡착 및 탈착에 미치는 영향

조새정, 이주현, 조지은, 김성수*, 김진걸

충남 아산시 순천향대학교 신소재화학공학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정에너지연구부*

Effect of Calcination on Hydrogen Adsorption and Desorption in Pt/MoO₃/SiO₂

Sae Jung Cho, Ju Heon Lee, Ji Eun Cho, Seong-Soo Kim*, Jin Gul Kim

Division of Material and Chemical Eng., Soonchunhyang Univ., Asan 337-745, Korea

Clean Energy Research Dept.,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Yusongku, Daejon*

요약 : 300°C 소성 Pt/MoO₃가 수소를 흡착후 탈착하는 속도를 측정하였다. 두가지 흡착 속도를 나타내는 Pt/MoO₃ 촉매에서 탈착량은 흡착량과 탈착 온도의 증가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XPS) 결과로부터 Pt와 MoO₃간의 활성점에 존재하는 Cl의 존재가 수소 이동 속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Key words : Pt/MoO₃, H₂ uptake, chlorine, calcination, adlineation sites

1. 서론

수소가 Pt/MoO₃ 촉매의 Pt 표면에서 해리되어 원자 상태의 수소로 전환하여 MoO₃ 금속 산화물로 이동하는 현상을 수소 spillover 현상이라고 한다[1-8]. 순수한 MoO₃는 400°C 이하에서는 수소 하에 환원되지 않지만, Pt/MoO₃에서는 분자 상태의 안정한 수소가 수소 spillover 현상에 의하여 50°C에서 해리 후 원자 상태의 수소로 전환되어 화학 반응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산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수소 침가 및 탈수소 과정에 따른 수소 이동이 반응 중에 나타나는 hydrocracking, reforming 등의 공정에서 수소 spillover 현상은 반응 조건의 저온화를 이루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Pt/V₂O₅와 Pt/MnO₂ 촉매 등의 소성 조건, Pt precursor 상태, Pt crystallites 크기가 수소 spillover 현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10].

Pt/WO₃/SiO₂ 촉매의 소성 시에 Pt 표면 위에 형성되는 WO₃ overlayer는 NO와 CO의 반응에서 반응 활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12]. Fripiat은 MoO₃를 소성 후 에틸렌 수소화 반응에서 MoO₃에서 Pt으로의 수소 spillover 속도가 크게 증가하고 반응 활성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였다[10]. 또한 Rh/MoO₃/Al₂O₃ 촉매의 Rh 표면에 형성되는 MoO₃ overlayer도 NO와 CO 간의 반응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소성

과정에 의하여 형성되는 overlayer는 반응 속도 결정 단계로 추측되는 spillover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발표되었다[13,14]. 이에 따라, 본 실험의 목적은 Pt/MoO₃ 소성 조건이 수소 spillover에 따른 Pt에서 MoO₃로의 H₂ 이동과 MoO₃에서 Pt로의 수소 이동 속도를 조사하는 데 있다. 이러한 수소 이동에 따른 반응 속도 및 반응 기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등은 흡착 실험후 연속하여 탈착 속도를 측정하였다.

2. 실험

2-1. 촉매 제조 방법

이미 발표되어 있는 바와 같이 Aldrich사의 ammonium heptamolybdate를 전기로에서 500°C 하에 10시간 동안 소성하여 orthorhombic 구조의 MoO₃를 제조하였다. 상기 촉매는 X선 회절법에 의하여 orthorhombic상인 것으로 나타났다[13]. Aldrich 사의 Pt precursor인 H₂PtCl₆.xH₂O를 Pt/MoO₃에 1 wt%의 구성비로 함침한 후 100°C 전기로에서 12시간 이상 건조시켰다. 제조된 시료는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성 온도에 따라 1시간 동안 재소성한 후 등온 환원 실험에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Pt/MoO₃로 구성된 촉매계를 이용하여 50°C에서 수소 흡착 반응 후 연속하여 탈착 반응에 따른 수소 이동을

관찰하여, 이에 따른 수소 이동량 및 이동 속도를 조사하였다.

2-2. 반응 실험

등온환원실험은 Union Gas 사의 0.58% H₂/99.42% N₂ 가스를 사용하여 40 sccm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Pt/MoO₃를 30 mg 충진후 열분석기(TCD)를 사용하여 반응에 참가한 H₂의 양을 측정하였다. Pt/MoO₃를 수소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응기에 넣은 후 촉매의 흡착 실험과 연속적인 탈착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ure 1은 N₂ gas 가 A 와 B 두 지점의 3-way 밸브를 통하여 두 개의 흐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B 지점을 통하여 N₂ gas 는 반응기를 거쳐서 TCD sample 부위로 들어간다. 반응기 내부의 촉매에 흡착될 0.58% H₂, 40 sccm 조건으로 B 지점에서 3-way 밸브를 통하여 장치에 유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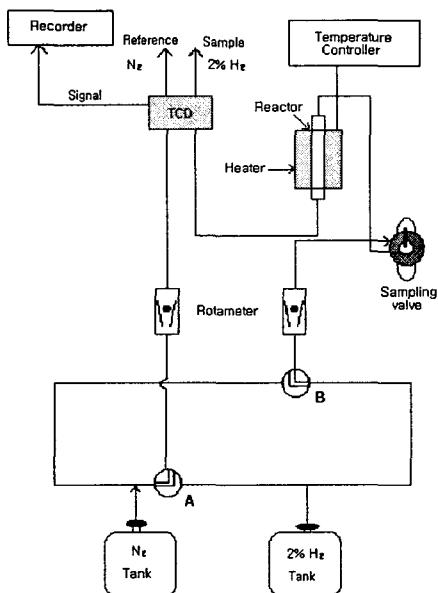


Figure 1. Schematic TPR apparatu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XPS, Surface Science SSX-100)를 사용하여 Pt/MoO₃ 표면의 성분을 분석하였다. 분석관 통과 에너지는 100eV, Flood gun 2eV 조건으로 설정되었다. 비소성 및 소성된 Pt/MoO₃의 표면 성분을 50°C 환원 조건에서 15분 동안 전처리한 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XPS로 측정된 비소성 Pt/MoO₃와 200°C에서 소성한 Pt/MoO₃의 Cl/Pt 상대비와, 50°C에서 15분 동안 환원후에 나타나는 Cl/Pt 상대비가 Figure 2에 나타나있다. XPS 결과로부터 비소성 Pt/MoO₃ 촉매의 Cl/Pt는 6에서 200°C 소성 후에는 Cl/Pt는 1.0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Cl/Pt 비의 감소가 흡착 속도 증가의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있다[13,14]. 이로부터 Figure 1에 나타난 200°C 소성 후의 흡착량 증가는 Cl/Pt 상대비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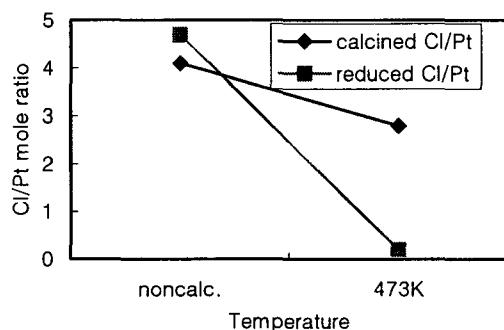


Figure 2. Effect of treatment temperature on Cl/Pt ratio of Pt/MoO₃

Figure 3에 XPS로 측정된 비소성 Pt/MoO₃와 200°C에서 소성한 Pt/MoO₃의 50°C에서 15분 동안 환원된 Pt의 전하값이 나타나있다. 200°C에서 소성된 Pt/MoO₃의 Pt°의 상대비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로부터, Figure 7에 나타난 Pt 결정에 함유된 Cl/Pt 상대비의 감소는 Pt와 MoO₃간의 활성점에 존재하는 Cl/Pt의 감소로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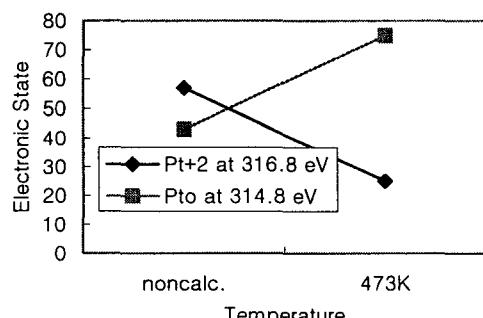


Figure 3. Effect of treatment tempertaure on XPS result for an electronic state of Pt

따라서, 또한 수소 이동 단계의 속도 결정 단계는 Pt와 MoO₃간의 수소 이동으로 보고되는바, Pt와 MoO₃간의 활성점에 존재하는 Cl의 존재가 수소 이동 속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5,16].

4. 결론

1. 비소성 촉매보다 473K에서 소성한 Pt/MoO₃ 촉매의 흡착 속도와 흡착량은 증가하였다.
2. 탈착 속도는 소성 온도, 탈착 온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Pt와 MoO₃간의 수소 이동으로 보고되는바, Pt와 MoO₃간의 활성점에 존재하는 Cl의 존재가 수소 이동 속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5. 참고문헌

1. A. Lueking and R. T. Yang, J. Catal., 211, 2, 565 (2002)
2. N. I. Najafabadi, G. Chattopadhyay and K. J. Smith, Appl. Catal., 235, 1, 47 (2002)
3. M. A. Ali, T. Kimura and Y. Suzuki, Appl. Catal., 227, 1, 63 (2002)
4. R. Ueda, T. Kusakari, K. Tomishige and K. Fujimoto, J. Catal., 194, 1, 14 (2000)
5. E. Baumgarten and L. Maschke, Appl. Catal., 202, 14, 171(2000)
6. O. E. Lebedeva, W. A. Chiou and W. M. Sachtler, J. Catal., 186, 2, 365 (1999)
7. F. Roessner, T. Braunschweig and U. Roland, J. Mol. Catal., 127, 1, 61 (1997)
8. E. Bittner and B. Bockrath, J. Catal., 170, 2, 325 (1997)
9. X. Lin, J. Francois, H. Lambert, and J. J. Fripiat, Catal. Lett., 3, 169 (1989)
10. J. P. Marcq, G. Poncelet, and J. J. Fripiat, J. Catal., 87, 339 (1984)
11. J. R. Regalbuto, C. W. Allen, and E. E. Wolf, J. Catal., 108, 304 (1987)
12. J. R. Regalbuto, T. H. Fleisch, and E. E. Wolf, J. Catal., 107, 114 (1987)
13. J. G. Kim, J. Z. Shyu, and J. R. Regalbuto, J. Catal. , 139, 153 (1993)
14. J. G. Kim and J. R. Regalbuto, J. Catal., 139, 175 (1993)
15. 김진걸, 공업화학, 10, 8, 1109 (1999)
16. 김진걸, 공업화학, 11, 5, 541 (2000)